

고향산천에 고추잠자리
산들산들 날아오르고



허형만
(시인·목포대 교수)

한가위라 명절날 고향 산천에
고추잠자리 산들산들 날아오르고
바람결도 소소소 간지럼피운다
햇살은 무르익어 대추 볼 볼그쪽쪽해가고
징검다리 노릇들 감싸 흐르는
강물도 한결 더 변질변질 빛난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부모님
오매 내 새끼야 목소리 들뜨고
온 가족 한 자리에 모여
오순도순 피우는 이야기꽃
그 향기에 초저녁 별들이 취한다
달 떠 온다 달 떠 온다
휘영청 한가위 달 떠 온다
가지 가지 달마중 가지
계수나무 아래 밤아 쨍는
옥토끼도 보러 가지
태워라 태워라 달집을 태워라
높이 높이 타오르는 불길 따라
우리네 액운도 모두 태워라
징을 울려라 쟁쟁이 쳐라
어루얼싸 어깨춤도 흥겨울시고
온 마을이 너를너를 출렁인다
중추야 둥근 달처럼
어화 등등 온 가족 얼굴마다
밝고 환한 그 웃음소리에
우주가 여울처럼 물보라를 일으킨다
그러, 그러
세상사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슬픔은 슬픔의 어깨 위에 기대어
신도주 한 잔 술에 녹고
한 삶이 비록 눈물겨울지라도
기쁨은 기쁨의 가슴에 안겨
따뜻하고 아늑한 꿈에 젖느니
어화 등등 중추야 둥근 달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위해
오직 오늘만 같아라
한가위라 명절날 고향 산천에
드높은 하늘은 더욱 드높고
플꽃은 플꽃끼리 어우러져 눈이 시련에
온 가족 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은
물그림살그림 물안개에 젖는다

한결음 한결음... 정겨워라 고향길



한가위 특집 지면 안내

- 10면 건강한 추석나기
- 11면 귀성·귀경 교통정보
- 12면 문화나들이
- 13면 가볼만한 곳
- 14·15면 어떤 책 읽을까
- 16·17면 어떤 영화 볼까
- 19면 추석 안방극장
- 20~23면 TV 프로그램

타지에 나가 있던 식구들이 오순도순 한 자리에 모이는 추석은 가족 간의 정을 새록새록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챙겨들고 한복 곱게 차려 입은 아이들과 발걸음을 재촉하니 마음은 벌써 고향집에 가 닿았다. /담양 관방천=최현배기자 choi@